



보도	2026.4.21.(화) 15:00	배포	2026.4.21.(화)		
담당부서	자본시장감독국 건전경영팀 자본시장제도팀	책임자	국 장	박시문	(02-3145-7580)
		담당자	팀 장	김용진	(02-3145-7602)
		담당자	팀 장	안태훈	(02-3145-7587)
	소비자피해예방국 피해예방2팀	책임자	선임국장	임권순	(02-3145-8220)
담당자		팀 장	심여희	(02-3145-8235)	

증권사 발행어음 · IMA 부문 C-level 임원 간담회 개최

1 간담회 개요

- '26. 4. 21.(화) 금융감독원은 7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(이하 '종투사') 운용 및 감사 부문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,
 - 발행어음 및 IMA 운용 관련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 강화, 생산적 금융을 선도하기 위한 종투사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

증권사 발행어음 · IMA 부문 C-level 임원 간담회 개요

- 일시 / 장소 : '26. 4. 21.(화) 15:00 ~ 16:00, 금융감독원 회의실
- 주요 참석자 : (금융감독원) 서재완 부원장보, 자본시장감독국장 (증권업계) 7개 종투사 운용 및 감사부문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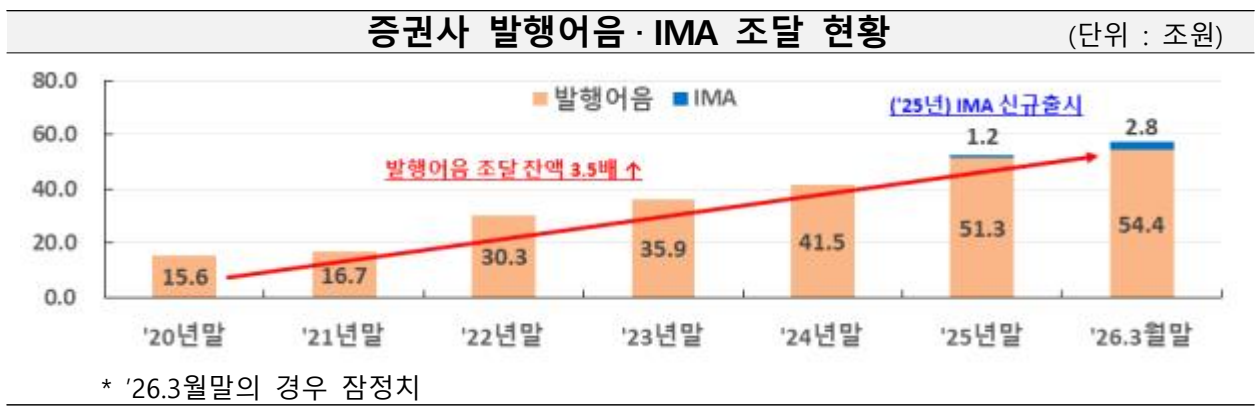
2 주요 논의내용

- 금융감독원 서재완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
 - 생산적 금융으로의 본격적인 대전환 계기가 마련된 만큼,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증권사 역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은 가운데

- '17년 발행어음 제도 출범, '25년 IMA 출시 등 양 제도를 통한 자금조달*이 본격화되는 등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종투사의 비중도 중요해지고 있음

* 발행어음 : ('20년말) 15.6조원 → ('25년말) 51.3조원 → ('26.3월말 잠정) 54.4조원(5년간 3.5배↑)
 IMA : ('25년말) 1.2조원 → ('26.3월말 잠정) 2.8조원

- 이에 종투사는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,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내부통제를 갖출 것을 강조하였음



가 발행어음·IMA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

- 발행어음 운용 자산에 대한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여 시장상황 악화 등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자체 대응여력을 확보하고
- IMA 만기 전 고객자금 회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산 선별시 자산 유동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

나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통한 기업 성장 견인

- 우리 경제의 “진짜 성장”을 위해서는 종투사가 중심이 되어 혁신·벤처기업에 대한 자본시장의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
- 잠재역량을 갖춘 미래 성장기업을 발굴하여 출자 등으로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종투사가 “가장 잘 할 수 있는” 중요한 역할

다 기업신용공여 리스크 관리체계 개선

- 종투사가 지속적으로 양질의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업신용공여 심사 및 신용리스크 관리 수준을 제고할 필요
 - 금감원은 '기업 신용공여 관련 모범규준'을 마련하는 등 모험자본 공급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권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

라 운용 적합성 점검 등 내부통제 강화

- 발행어음 제도의 지속적 성장과 IMA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종투사 내부통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
 - 감사부서 등을 중심으로 운용 적합성 및 투자자 보호장치의 실질적 작동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시 개선할 필요

마 해외 사모대출펀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

- 해외 운용사와 적극 소통하며 해외 피투자펀드 환매동향 및 손실 규모 등을 조기 입수하여 투자자에게 신속 안내*

* 既 환매신청 투자자에게 환매제한 발생시 재접수 절차 안내 포함

- 또한 해외 사모대출펀드의 주요 산업군별 건전성 현황 및 유동성 리스크 등을 분석하여 위험 발생 가능성에 선제적 대비

3 참석자 발언 요지

- 참석자들은 최근 양호한 영업실적 및 자본규모 등을 고려할 때 종투사의 건전성은 견고한 상황이고

- 특히 종투사는 IMA·발행어음 조달자금뿐만 아니라 자기자본 등을 활용하여 총 9.87조원*의 모험자본을 적극 공급하고 있으며

* IMA·발행어음 종투사의 '26.1분기 모험자본 공급 규모는 총 9.87조원(잠정)이며 IMA·발행어음 조달금액(57.2조원) 대비 17.3% 수준으로 규제비율(^{26년}10%) 초과 달성

- 향후에도 중소·벤처 투자 등 실질적인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통해 자본시장의 생산적 자금공급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

<참고> '모험자본 의무비율' 규제

◇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(IMA·발행어음 운용자산에 한정X)에서 IMA·발행어음 조달액의 25%('26년: 10% → '27년: 20% → '28년: 25%)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의무화

$$\text{모험자본 의무비율} = \frac{\text{총자산 중 모험자본* 공급액}}{\text{IMA+발행어음 조달자금}}$$

* 중소·중견기업 자금공급, A등급 이하 채권 (대기업 제외), P-CBO 매입, 상생결제 및 VC·신기사 투자, BDC, 국민성장펀드 등

- 또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증권업 본연의 역할 및 종투사 위상에 걸맞는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 등에 공감하며
- 투자자 이익 보호 관점에서도 고객자산 운용 및 판매 단계별 내부통제 현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 하겠다고 밝힘

4

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은 발행어음 및 IMA 제도가 자본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들의 유용한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 하도록
- 종투사의 운용 현황 등을 분석하여 잠재 위험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을 지도하는 한편
-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관련 세부 현황 등을 지속 점검하고, 업계와 소통하여 필요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